지상백고좌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

“선불교는 생활선…하루 10분 참구해보길”

지상백고좌 취재를 갈 때마다 필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의 심정이 된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을 참례하고 법을 여쭤볼 생각에 절로 가슴이 설렌다. 이번에 필자가 참례한 선지식은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인 의정(義正) 스님이다.

태고 보우 국사가 주석했던 도량이어서인지 경기도 양평 상원사에 닿자마자 필자는 태고 보우 국사가 현릉의 청으로 지은 ‘달마(達磨)’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푸른 눈의 스승이 오기 전에도 사람마다 의기가 하늘을 찔렀고 외짝 신 들고 서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사람마다 두 눈썹이 모두 완전했거니 무슨 일로 그렇게 가고 오고 했던가? 냉정히 생각하고 한 번 웃기 위해서였네.’

서옹 스님이 편액을 쓰고 송담 스님이 주련을 쓴 용문선원(龍門禪院)을 지나치면서 필자는 냉정히 생각한 뒤 한 번 웃을 수 있는 그 소식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했다. 의정 스님은 이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송담 스님에게서 ‘판치생모(板齒生毛)’를 화두로 받고서 인천 용화사,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 70안거를 성만한 대표적인 선승이다.

한 수좌가 찾아와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조주 선사가 대답한 것이 바로 ‘판치생모’다. ‘판치생모’는 앞니에 터럭이 났다는 의미이니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인사를 드리자 의정 스님은 “무엇을 취재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그저 선재동자의 심정으로 선지식을 찾아뵙는 것”이라는 필자의 대답에 의정 스님은 자신이 발심출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의 중흥조인 운경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전국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하다가 인천 용화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친견한 뒤 법제자가 되었다. 송담 스님으로부터 ‘판치생모’ 화두를 받고서 용화사,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전국의 선원에서 70안거를 성만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으로서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위원과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무전 여행을 떠났다. 보름간 이어진 여행 내내 스님의 뇌리 속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고생 끝에 목포 앞바다에 당도한 스님은 인류 4대 성인의 사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4대 성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후 스님은 부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의 사상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불교성전〉과 〈불교학개론〉 등 불교서적이었다.

“제가 인류 4대성인의 사상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세속적 욕망인 권세와 부귀와 명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세속적 욕망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발심을 했던 것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형국이었다. 삶에 대해 의심했던 까닭에 스님은 출가의 발심을 낼 수 있었다.

당시 경기도 의정부에서 살고 있던 스님은 의정부포교당 주지인 운경 스님을 찾아갔다. 운경 스님과의 법연으로 말미암아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로 출가할 수 있었다.

“제가 ‘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로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은사스님께서 ‘봉선사에는 고승인 운허 스님이 계시니 너를 잘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가한 뒤 스님은 봉선사 조실 운허 스님에게 법을 구했다. 운허 스님은 사교입선(捨敎入禪)할 것을 권했다. 무작정 문자 밖의 깨달음을 구할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경전부터 배우라는 충고였다. 운허 스님의 지시에 따라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수료한 뒤 성철 스님, 월산 스님, 서옹 스님, 향곡 스님 등 당시 최고의 선지식들을 참례했다. 그러던 중 송담 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순간 스님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인연을 만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판치생모’를 화두로 받은 스님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일보(進一步)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했다. 체중이 60kg에서 40kg으로 줄어들어서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장기 전체에 염증이 퍼졌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스님은 상기병(上氣病)에 걸려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서구 물질문명 대안은 ‘간화선’

미국 등서 유행하는 명상들은
오직 定만 추구…매우 위험해
계정혜 닦아야 ‘열반’에 이르러

누구든 無心할 수 있다면 正覺
마음 속 망상 없는 게 곧 무심
간화선, 망상 없애 무심되는 길

‘내세에 다른 몸으로 정진해야겠다’고 결심할 즈음 송담 스님이 법제자의 구명(求命)에 나섰다. 송담 스님이 소개한 민간요법으로 3개월 동안 치료한 끝에 스님은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스님이 목숨 걸고 했다는 화두선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간화선이 다른 수행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설명했다.

“달마 대사에서 육조 혜능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으로 인해 중국에 조사선 수행이 유행하게 됩니다. 조사선이 유행하면서부터 중국의 총림은 농경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도 계율에 어긋납니다. 농사를 짓느라 농기구로 땅을 파헤칠 경우 미물(微物)을 살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재세 당시 승가 공동체는 탁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수행만 하는 것을 무위도식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만 있는 정사(精舍)에서 수행을 했던 남방의 승가 공동체와 달리 사계(四季)의 절기가 있는 중국의 승가 공동체는 사벽(四壁)과 난방시설을 갖춘 요사(寮舍)가 필요했습니다. 궁리 끝에 중국의 승가 공동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차법(開遮法)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범개차(持犯開遮)는 ‘작은 계를 범함으로써 큰 계를 지키는 법’이자 ‘계를 열고 닫는 법’입니다. 총림의 승가 공동체가 논밭을 경작하다 보니 청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장청규입니다. 당시 총림의 대중은 낮에는 6시간씩 노동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좌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주자와어묵동정’은 앉아서도 서서도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의정 스님은 “간화선의 모태인 조사선은 동선(動禪) 위주의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육조 혜능 선사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을 좌착(坐着)이라고 경계했다.

“간화선 전통을 수립한 대혜 종고 스님은 묵조선의 병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조선은 묵묵히 앉아서 본래 청정한 자성(自性)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두를 놓지 않고 수행하는 간화선과 달리 수마(睡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선(坐禪)과 동선(動禪)의 균형을 맞추고 나서야 저는 상기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간화선은 사마타의 정신력과 위빠사나의 지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의정 스님은 좌선과 동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문선원 납자들에게는 인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깨달음의 목적은 중생구제임을 잊지 말라는 ‘보청법(普請法)’인 것이다.

1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